

경축 39회 이슬성신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슬성신을 내려야 한다

조희성님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슬성신을 부여하는 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있어야 이슬성신을 받는 거지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있으면 이슬성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2003. 1. 1 이슬성신절 말씀).”라고 말씀하셨다. 구세주의 설교 말씀의 골자 중의 골자는 ‘이슬성신을 가지고 와야 진짜 구세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슬성신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하겠다.



이탈리아 화가 안토니오 템페스타(Antonio Tempesta, 1555~1630)의 만나를 채집하는 그림

박태선 장로가 최초로 이슬성신 증거 시작

이 땅에 이슬성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시작된 것은 전도관 역사를 펼쳤던 박태선 장로님으로부터이다. 박태선 장로님은 6.25전쟁 때 인민군을 피해 자신의 집 구들장 밑에 숨어서 지내던 중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생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1.4후퇴 때 평택으로 피난 가서는 이슬성신을 받았다. 이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은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 7: 38)”,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호 14: 5)”

그런데 ‘이슬’이 무엇인지는 이를 받은 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 다만 성경에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리라(사 26: 19)”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 이슬은 죽음을 없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슬성신: 사망을 이긴 구세주의 영

조희성님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슬성신이란 무엇인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구세주 하나님

님의 영이다. 이슬성신은 사망 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박멸소탕시키는 살마(殺魔)의 광선이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은혜이며,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우주를 주물럭거리리는 조화의 권능이 있는 오직 구세주만이 갖는 유일무이한 특별권능이다. 구세주가 이슬성신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은 마귀를 이긴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마귀의 군대를 몰아내고 우주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수 있는 것도 마귀를 죽이는 권능의 이슬성신이기 때문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신명기 18: 18-19)”고 모세가 말하였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 이 광야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겠다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니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슬 같은 만나가 내렸는데, 눈처럼 마당에 하얗게 쌓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태기에 퍼다가 먹으면서 40년간 60만 대중을 먹여 살린 것이다. 이를 보아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슬 만나를 부여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세주라면 이슬 만나를 부여하는 자라야 구세주가 될 수 있지 이슬 은혜를 못내린 예수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예수는 이슬성신을 내리지 못했으므로 가짜 구세주

예수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라고 말했지만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거짓 선지자요 메시아인 것이다.

모세는 육적인 이슬만나를 내렸지만, 바로 마지막 때에 오신 구세주는 썩을 그러한 이슬만나가 아니고 썩지 아

니하는 영원무궁토록 영생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희성님은 이슬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영생하게 하며, 또한 구세주의 5대 공약(공산주의 소멸시킴, 계속 풍년됨, 장마 없앴, 태풍 막음, 남북전쟁 막음)을 실현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세계 만민들은 구세주가 부여하시는 이슬성신을 받아 먹고 영생하려면 빨리 여기 승리제단으로 와야만 한다. 승리제단 이외에서는 이슬성신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조희성님이 1980. 10. 15. 이긴자가 되었다는 것은 죄의 옷을 벗었다는 뜻이며, 그때에 육신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 하나님의 신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이슬성신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죄인으로서의 조희성과 죄의 옷을 벗은 후의 조희성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후자로서의 조희성은 이기신 하나님의 신으로 변화된 조희성이니 그러한 존재를 감히 인간이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는가.

수억천만 개의 몸으로 분신(分身)을 하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우주를 조종하는 그런 존재의 실체를 어느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시고, 온 우주에 편만(遍滿)하시며, 전지전능한 신이신 조희성 구세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구세주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이며 영원토록 계시면서 인류를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변화시킬 전지전능한 구세주이시다. 누구든지 조희성 구세주를 마음속에 세기면 소원을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부처님)으로 거듭나게 된다.*

고 문제를 바라볼 때 보다 도전적 의식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문제를 두려움,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도전해야 할 과제로 알고 도전적 마음을 키우는 일이 나이와 상관없이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고 늘리는 방법입니다.

노화에 제일 좋은 운동량은 자신의 운동량의 60%로 걷거나 달리기 등의 유산소운동이 효과가 크므로 주 40분씩 3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텔로미어를 복원시키는 효소 텔로머라아제를 증가시키는 음식으로는 커피와 비타민 D가 좋다고 합니다.*

윤금옥 승사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49)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는다”

개는 개 생각을 하고 개소리를 하며, 소는 소 생각을 하고 소의 소리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자기의 주체 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이 너무나 오묘하여 자신도 모르게 감탄이 나온다. 그 말씀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 속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벌써 음성 속에서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 영을 지닌 자는 제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전히 말기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말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여하시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을 들으면 그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독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새해에는 만사영통하시고 영생의 대복 꼭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망의 2019년 황금 돼지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어떻게 하면 우리네 인생을 보다 값지고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독일의 신학자 ‘징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현대인을 진단하였습니다.



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상한 현상 때문인가? 독일의 신학자 ‘징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현대인을 진단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장비를 준비하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식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떠날 때 하루 만에 식수가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졌고 마침내 실신할 기미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 그는 눈을 떠보니 눈앞에 야자수가 보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죽

을 때가 되어 환각이 보이는구나!” 하고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귓가에 물소리와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 이제 정말 내가 죽게 되는구나!’ 라고 또 다시 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사막의 배두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에 물을 얻으러 왔다가 물가에서 입술이 타들어 가 죽은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애! 여기 죽어 있는 젊은이가 바로, 오늘날 현대인(現代人)이란다. 나는 현대인(現代人)인가?”

“오아시스 물가에서 목말라 죽은 현대인” 정말 이 시대의 세태를 그럴 듯하면서도 적나라하게 비유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바보같은 현대인.

*결국 이리다 서로가 파멸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연과 지구파괴의 길을 버젓이 걷는 우매한 현대인.

*벌어놓은 재산을 그저 쌓아놓기만 했지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 재산 싸움으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상한 부모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현대인.

*시간을 내어 떠나면 그만인 것을 알아서 온갖 계산에 머리 싸매며 끝내는 찾아온 소중한 여행의 기회도 없애버리는 중병에 걸린 현대인.

*끝없이 으르렁거리며 저 잘났다고 뽐기며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불쌍한 현대인.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릴 적 그냥 행복했던 순수한 감정으로 돌아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잊고 지냈던 소중한 행복의 오아시스를 찾아봅시다. 행복은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의 오아시스’가 지천인데, 우리는 여전히 “물 물 물”을 외치고 어리석게도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런지요!!*

김주호 기자

텔로미어와 스트레스 줄이는 법

우리 몸의 노화에 가장 관여하는 부분은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점점 짧아지다가 일정길이까지 짧아지면 세포재생이 멈추며 노화가 급격히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빌 앤드류와 엘리자베스 블랙번을 비롯한 텔로미어 연구자들의 내용 중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결혼이 장기간 존속된 부부나 평생 친

구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텔로미어가 잘 유지되었습니다. 유년기부터 감정적 무시나 폭력, 집단 따돌림, 인종차별에 노출되는 것은 모두가 텔로미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낸 어린이, 자기 이웃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낸 사람들은 일관되게 더 짧은 텔로미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텔로미어 길이를 짧아지게 하므로 스트레스를 일

으키는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하며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제 3자의 입장이 되어 영화를 보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고민이라면 제 3자의 입로 바꾸어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을 덜 받아들여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은 일이 10년 후에도 자기에게 문제가 될지를 자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거리를 두

경축 39회 이슬성신절 영생교 하나님의 생화 승리제단 2019년 1월 1일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

김주호 기자